

유튜브로 '시정소식' 전달

익산시, '다이어움 익산소식' '마룻이가 간다'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춰 대시민 소통

익산시는 유튜브를 활용해 시정소식을 전하며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주 시정 소식을 알리는 '다이어움 익산소식'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 신청사 건립, 청년 외식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또 다이나믹 키즈월드 개장 폭염 대응 맞춤형 대책, 중앙동 일대 침수피해 희망장터 운영 등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고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이건 못참치

또 공무원이 직접 기획·출연·촬영까지 진행한 교도소 세트장 홍보 영상과 패러디 방식의 복지정책 소개 등은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했다. 여기에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마룻이가 간다'를 통해 지역의 관광지 소개와 함께 지역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 브이로그를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자원 활용한 위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선정된 작품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튜브 등 SNS가 효과적인 홍보 방식으로 주목받는 시대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익산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잔여필지 18획지를 일반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원생활 꿈꾸는... 입주민의 최적지

군산시,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18획지 공개매각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잔여필지 18획지를 일반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만경강, 봉황산 등 자연 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총 28획지(15,079.5㎡)로 조성됐다. 지난 7월 1차 공개매각을 추진해 10필지가 매각됐으며 이번에 잔여 필지인 18획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1획지당 6,088만 5,000원~8,147만2,000원, 면적은 451㎡ ~ 611㎡이다. 매각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기간은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이며, 개찰일은 9월 8일이다.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명확인 절차로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호원대학교, 구)임피역이 있고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토지구입자 등 금융지원도 가능해 전원생활을 꿈꾸는 입주민들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피지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계획과(063-454-349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저소득 가정 위해 촘촘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익산시,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0만원 일괄 지급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등 총 2만8600명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24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계좌 정보 확인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좌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저소득층 등은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된다. 시는 홈페이지, 포스터 등 온·

오프라인 홍보와 지급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우편 등 개별연락을 실시해 누락 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망을 위해 신속지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며 이후에도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해신동, '착한가게' 1호점 쌍용반점 기부문화 확산 앞장

군산시 해신동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친 '착한가게' 1호점이 가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비대면 홍보부스 및 개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첫 번째 결실로 지역 내 위치한 쌍용반점에 '착한가게' 1호점 현판식을 지난 20일 진행했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선정된 쌍용반점은 상상한 바지락, 모시조개, 홍합 등으로 우려낸 짬뽕 국물이 일품인 가게로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현재 백년가게, 진

품평가 타이틀을 획득한 우수업체다. 해신동 착한가게 1호점의 주인공이 된 고영수 대표는 "쌍용반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착한가게 후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부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현 해신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착한가게에 동참하고 나눔에 앞장서 주신 쌍용반점 고영수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으며, 유수일 해신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착한가게 1호점을 시작으로 지역 내 가게들이 착한가게에 관심을 갖도록 위원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예방 교실 운영

군산시보건소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심신 안정을 위해 서부권(소통·미성동)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오감민족 뇌청춘 치매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치매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대상자의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물론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긍정적 사고를 유발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된 교육 내용은 인지훈련매뉴얼 및 두뇌건강 놀이책



등 뇌운동프로그램, 사회활동감소로 인한 노인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 심신의 안정을 돕는 힐링타임 원예심리 프로그램, 올바른 잇솔질 및 노인틀니 관리 구강위생교육, 기억력 증진을 위한 건강레시피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학기 대비 상담주간 운영

군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진호)가 신학기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2021년 2학기 대비 상담주간(8월23일~9월17일)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운영되는 상담주간동안 비행, 정서, 학습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를 비롯해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 등을 지원한다.

김진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해, 비대면 상담 및 심리검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기자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문화예술창의역량강화캠프 운영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인 '문화예술창의역량강화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화예술창의역량강화캠프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 펼쳐진다.

이 캠프는 프라임 인문학진흥사업 후속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캠프는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 창작을 진로로 희망하거나 글쓰기에 뜻을 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난 7월 제1캠프에 이어 제2캠프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작가와 아나운서 등 창작에 기술적·발상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여러 분야 강사가 나서 비전공 학생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특강과 별도로 원하는 강사에게 자신의 습작품을 개별적으로 첨삭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강연호 인문학연구소장은 "이번 온라인 문화예술창의역량강화캠프를 통해 재학생들이 작품 창작의 올바른 방향을 설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